

전북연구원 보도자료

아름다운 산하 응비하는
생명의 삶터, 천년 전북!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286-9206)
<http://www.jthink.kr>

•문의 : 연구본부장 이강진 선임연구위원
(063-280-7141)

•담당자: 여성정책연구소 조경옥 선임연구위원
(063-280-7191)

보도시점 : 2021년 12월 16일(목)부터

‘지역사회 다문화 수용성과 정책과제 모색’

-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, 제4차 성 평등 정책포럼 주최
- 다문화수용성 제고 사업의 성과와 한계, 사회통합을 위한 향후 정책과제 모색

[사진 및 영상자료 : 사진 자료 있음]

-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(소장 이수인)는 17일 오전 10시 ‘지역사회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’을 주제로 제4차 전북 성 평등 정책포럼을 온라인 비대면 (ZOOM) 방식으로 개최하였다.
- 이번 포럼에서는 외국인 주민 및 이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사회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과 원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실태 및 관련 사업의 성과와 한계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안 마련을 지역사회 관점에서 살펴보았다.
-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영태(대구여성가족재단, 선임연구위원)는 ‘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(여가부)’ 결과 및 ‘대구지역실태조사’를 토대로 성과 연령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 정도와 특징을 시계열

적으로 분석하고, 향후 정책과제로 ‘다문화 이해교육’의 필요성과 구체적 전략을 제시하였다.

- 발제내용에 대해 토론자들은 다문화이해교육의 컨트롤타워 마련 필요성과 다문화 이해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 및 강사교육의 체계화, 다문화 축제 확대, 이주민과 함께하는 한국문화교육과 한국인을 위한 다문화 교육 추진,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소통 창구 활성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.
- 이수인 여성정책연구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문화 교육의 질적 향상뿐만이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이주민을 존중할 수 있는 인권 중심의 다문화 이해교육이 전제될 때 지역사회 통합이 이루어 질수 있음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평가했다.

2021년 제4차 전북 성 평등 정책포럼
**지역사회 다문화 수용성
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**

2021. 12. 17(금) 10:00

Zoom을 통한 실시간 비대면 포럼



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